



인문학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전쟁과 인문학》

진순애 지음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352쪽 | 값 14,000원



유랑민처럼 부유하는 현대인의 자화상

《기억을 잃어버린 도시》

김진송 지음 | 세미콜론 | 312쪽 | 값 12,000원

인류의 염원과는 다르게 지구의 평화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전쟁이 멈추면 문명의 발달도 멈출지 모르기 때문이다. 칸트는 전쟁을 필요악으로 규명하며 '소질을 계발시키는 원동력'으로 전쟁을 봤고, 《서구의 몰락》을 쓴 슈펜글러도 "변화는 세계전쟁을 불가피하게 가져온다"고 말했다.

《전쟁과 인문학》은 이러한 전쟁의 이율배반을 인문학을 통해 연구한 책이다. 특히 인문학 중에서도 역사와 문화의 집적이라 할 수 있는 문학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전쟁과 문학의 상관성'은 '전쟁과 인문학의 상관성'의 축소판이라는 판단에서다.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인 해방공간을 시작으로 1980년대 해체시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해방 60년의 한국 현대문학사의 패러다임과 '전쟁의 정치성'에 항거하는 '인문학의 정치성'을 조망했다. 또한 북한의 문학과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의 전쟁시가 취하고 있는 정치성 즉 '전쟁미학의 정치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인문학의 변화가 아니라 칸트가 말한 필요악으로서의 전쟁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역사의 발전이란 문명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전쟁의 변천사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이율배반성이 야기한 폭력적 파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제1,2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발전을 위한 필요악으로서의 전쟁'이라는 칸트의 명제를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비문화적인 '폭력의 정치성'이 발현된 전쟁임을 지적한다.

저자는 결국 전쟁이 인문학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문학이 전쟁에 미칠 영향관계를 고려하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둬으로써 인문학적 성찰이 전쟁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신동섭 기자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기거하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도시는 기억의 세월이 숨쉬고 있는 집과 마을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를 통해 한국 근대의 형성 과정을 날카롭게 파헤쳤던 목수 작가 김진송은, 신작 소설+에세이 《기억을 잃어버린 도시》에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노량진의 빈민촌에서 보낸 유년의 기억을 통해 뿌리 없이 유랑민처럼 부유하는 현대인의 아픈 자화상을 그려낸다.

1부 '강변의 기억'에선 유년의 기억에 자리 잡은 이웃 사람들, 옛 동네 풍경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억눌렀던 '과거의 나'를 해방시킴으로써 정서적 치유의 과정을 경험한다.

2부 '기억의 재현, 혹은 조금 긴 후기'는 기억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에세이이자 기행문이다. 유년의 공간 속에 존재하던 드넓은 백사장, 철교와 뚝방, 서늘한 별장의 나무그늘, 강변의 기억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금은 수산시장이 들어선 옛 동네를 찾아 간 작가는 추억의 공간들을 하나 둘 씩 되짚으며 소설을 통해 복원한 유년 시절의 풍경이 흐릿해짐을 경험한다. 무한 속도로 내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지도 모른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도대체 언제까지 기억의, 과거의 공간을 파괴하는 행렬이 이어질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김지희 기자



《사이시옷》 손문상 외 지음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 창비 | 224쪽 | 값 9,500원
 《어디 편들 꽃이 아니라》 성남훈 외 사진 | 공선옥 외 글 | 현실문화연구 | 240쪽 | 값 23,000원



《문장(文章)》(전2권)
 최인호 글 | 이보름 그림 | 랜덤하우스중앙 | 각권 194쪽 | 각권 값 8,500원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우리나라 사진가·작가 등이 완성한 《어디 편들 꽃이 아니라》는 사회 속 '차별'과 '소외'의 대상을 사진에 투영하면서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이들과의 소통로를 마련한다. 작가들은 한 것으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다는 보편적 언어, 사진을 통해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인권 감수성이 꽃피길 기원한다.

한국으로 시집 온 아시아 여성들의 사진을 보면서 누이 같던 싱가포르 여자 친구 초화를 떠올려보는 조병준의 글, 비정상적 경제발전의 결과로 등장한 조손가족과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성남훈의 사진 등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찡해지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그야말로 '오독'이다. 장애우, 비정규직 노동자... 그들의 이미지를 두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곱씹어보는 태도, 여러 작가들이 발품 판 공력을 헤아리고 이 책을 정독하는 길이 아닐까 싶다.

표현법만 다를 뿐 《사이시옷》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획물, 인권을 주제로 하는 책이란 점에서 위의 책과 닮은꼴이다. 손문상, 장차현실, 홍윤표 등 만화가들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만화화법으로 미혼모, 장애인, 여성 등 차별받는 이들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한다. 특히 풍자라는 무기를 가진 만화를 통해 어찔한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들이 유독 눈에 띈다. 한 컷 만화로 풍자성을 극대화 한 손문상 씨의 만화는 죽어서도 차별받고 심지어 아이까지 비정규직으로 낳는다는 설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을 잘 형상화했다. 또 입시라는 마법이 지배하는 교육현장과 빈부 차별로 신음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특유의 패러디 형식으로 묘사했다.

김청연 기자

작가 최인호는 196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벽구멍으로〉가 입선해 등단했다. 소설가로 살아온 지난 40년간의 세월동안 그의 이름 앞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가'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타인의 방》 《잠자는 신화》 《개미의 탐》 등의 소설집과 《별들의 고향》 《상도》 《해신》 《유립》 등 주목받는 장편소설들로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은 결과다. 이번에 나온 두 권의 《문장》은 그만의 인생과 철학을 정리하며 나온 수상록이다.

그는 확실히 '문제작가'다. 어린 나이에 문단의 주목을 받으며 등단해 내는 작품마다 주목을 받았으며 그러한 작품은 TV 드라마와 영화로 재탄생되기도 했다. 베스트셀러 대열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은 한 사람의 작가가 반세기가 다 가도록 작품을 써내는 일이란 '천재성'과 '인기'만 가지고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좋은 작품은 자신의 내면과 세상을 내다보는 치열한 눈과 인고의 여정을 감내할 때에 나오는 것. 이러한 여정을 잘 견뎌온 작가 최인호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 있다.

《문장》은 철학과 예술, 역사와 종교를 통해 그가 묵상하고 깨달은 순간의 기록이다. 자신이 체득하며 원격 체험했던 문장들과 작가의 고백, 그리고 여백이 더해진 이 책은 읽고 쓰고 사색하는 지성적 행위가 결국은 정신을, 영혼을 일깨우기 위한 치열한 버림질임을 알게 한다.

젊은 동양화가 이보름이 그린 그림 또한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다. 한 소설가의 아포리즘을 기록한 수상록이자 한 화가의 그림을 담은 특별한 화집 《문장》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가'들의 흔적이 담겨 있다.

홍이현 기자